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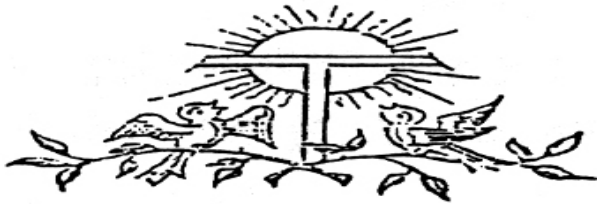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5-11호 2005년 11월 20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봉사란...

프란치스코 봉사는 진실한 형제적 사랑과 친절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심을 지니십시오. 어떤 형제의 죄 때문에 그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온갖 인내와 겸손을 다하여 너그럽게 훈계하고 부축하도록 하십시오. (신자 43-44)

보호자는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형제를 자애롭게 돌보아 줄 것입니다. (어느 봉사자 17)

회원은 성부께 당신의 의지를 위탁하신 예수님의 구원자적 순종을 본받아,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회칙 10)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으로 사회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회칙 14; 회헌 20,2)

회원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칙 13조 후반)

**왜 사는가?** 신앙인의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봉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이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로 꺼려하기도 한다.

**왜 봉사하는가?**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의 봉사의 근본 동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섬김의 삶이었으며, 성 프란치스코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언자들도 사도들도 섬김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봉사의 내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섬김의 기본적인 원리는 형제들 상호간의 순종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섬긴다. 이러한 섬김은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봉사를 하되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며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 못박히셨기에 저희는 그분의 가난과 고통을 나누어 받고자 원하였으며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봉사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나이다. 저희는 권력과 특전과 권위로써 보다는 단순성과 겸손과 작음의 덕성으로 이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오며, 그리스도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저희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나이다.

- 프란치스코 신앙고백 중에서 -

##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

(1마카 6,1-13)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는 왕실 재정이 바닥나자 속국들로부터 재물을 약탈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갔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엘리마이스라는 도시의 신전에 보화가 많다는 말을 듣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공격했으나 패하여 바빌론으로 도망쳤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대인을 멸망시키라고 군대를 맡겼던 리시아가 유다를 공격하다가 패퇴했다는 보고를 받고 속이 상한 끝에 병상에 누웠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힘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다. 사람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 숨 한 번 거두어 가시면 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며, 결국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처럼 허약한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처럼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잘 버리고 자신을 잘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잘 죽을 수 없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잘 버리고 잘 죽는 것이 곧 하느님께 가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 문화의 추종자였다. 그는 왕이 되자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 종교를 믿도록 종교의 통일을 꾀했다. 특히 팔레스티나 지방과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그는 유대교를 없애기 위해 안식일과 유대교 축제를 금지시켰으며, 모든 제사의식과 율법의 낭송까지도 금지시켰다. 율법의 필사본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했으며,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모든 유대인들도 제우스신을 숭배하도록 했다. 배교의 표시로 율법에 금한 돼지고기를 먹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하였다. 이처럼 그는 하느님을 거스르며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다.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키우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그 자신이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가시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자신을 잘 버리고 잘 죽이는 신앙인이 되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신앙인이 되자. 자신이 창조된 까닭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자.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보다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자.

-경규봉신부(전주교구)

**이 세상을 바라보노라면, 세상은 곧 사랑이고 모든 생명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심을 알게 되오니  
저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대하여 살도록 재촉하시나이다.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항상 탕자로서 아버지의 품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몸이오이다.**

- 프란치스칸 신앙고백 중에서 -

##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인디언을 보호하는 보호구역에서 살던 미국의 한 원주민 인디언이 하루는 도시에 사는 백인 친구를 찾아갔다. 차량의 소음과 분주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도시의 혼란스러움은 인디언의 정신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던 인디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친구에게 말했다. “잠깐만 가만히 있게나. 자네도 저 소리가 들리는가?” 백인 친구는 인디언 친구를 바라보며 자신에게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는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며,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근처 어딘가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네.” 인디언의 대답을 들은 백인 친구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아마 잘못 들었을 걸세.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나? ...아직도 자네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다네, 분명 이 근처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네.” 인디언은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몇 발자국을 걸어가더니 어떤 집 담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덩굴 잎새 하나를 뒤집었다. 바로 그곳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 친구가 말했다. “자네가 귀뚜라미 소리를 잘 듣는 건 당연하겠지. 자네들 인디언은 도시에 사는 우리들보다 귀가 훨씬 밝을 테니까.” 그러자 인디언은 빙긋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도로 위에 던졌다. 쟁그랑 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인디언은 동전을 집어들며 말했다. “자네도 25센트짜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걸세.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돌아보았다네. 반면에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것은 나밖에 없었네. 이유는 인디언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네. 사람은 으레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잘 듣게 되어 있다네.”

<기독교사상> 10월호 ‘옛글나들이’에서

정신없이  
바쁜 나의 하루하루에  
고요함을 가슴에 불러드려  
평화를 온 몸에 채우고 싶습니다.  
왠지 나에겐 예전에 누렸던 평화가  
나의 바쁜 순간 속에 묻혀있는 듯 합니다

주님!  
먼 길을 걸어갈 때 쉬고 가면 힘이 나듯이  
순간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만끽하고  
밤이면 셋별되어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낮이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어  
어둠 속에 해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혼육신의 자유와 평화를 찾아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성격이 다 다르고  
주님께서 주신 талант도 다 다르듯이  
우리 형제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재능이 형제자매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회원 모두가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심는자 되게 하소서.

- 보나벤투라 형제회 봉사자 -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허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야고보 1,26-27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11월 27일 구역반모임 대신 대림 피정이 성당에서 12시부터 있겠습니다.
- + 12월 3일 양성 보조자 교육이 한테레사 자매대에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12:30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 12월 18일 월례회를 하고 난 후 신부님의 송별회가 있겠습니다. 1시까지 한테레사 자매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 + 그동안 회비나 후원회비가 밀리신 분은 2005년 12월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0월 21-23일 웨스터 버지니아의 Priestfield 피정집에서 있는 지구형제회 피정에 5명이 다녀왔습니다.
- + 10월 29일 Rockville 지구형제회 연중 회의에 한테레사 김미경 자매가 다녀왔습니다.

### 11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미사  
3:4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4:00 PM - 월례회

### ✂ 미사 성가: 지침서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봉헌: 3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6번 우리는 형제로

신자들의 기도:

이장훈, 남효선, 김영숙, 김미경



###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11월 22일  
박용순 세실리아

###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11월 6일 일요일 뉴욕 형제회에서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리며 ...
- + 세계 곳곳에 일어난 천지지변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집과 가진것 모두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
- + 11월 19일 토요일 트라이앵글의 형제회 설립 10주년 미사에 한테레사 자매와 이아모스 형제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축하드리며 ...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497-0069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병두 신부 O.F.M. berdiofm@hanmail.net